



『마아페르』라는 佛  
人의 寫眞帖에서 轉  
載한 것이라 위와 같  
은 不確實한 점은 어  
떻게 할 수가 없다.

거기서 부터 轉載된  
寫眞은 지금 韓電의  
圖書室 寫眞帖에 붙  
어 있다.

一一

中央에 母岳이 主  
山으로 솟고 오른편  
에는 仁王山의 背梁  
이 突出하여 饑饉은  
이 두 산의 南麓을  
向하여 展開되고 있  
다. 山은 小混點,  
如實하게 皴擦된 仁

旺山 後壁 위에는 曲城처럼 보이는 城壁이 돌고 있다. 母岳과의 골짜기  
에는 母岳편으로 山을 넘어간 좁은 길이 있는데 그 중턱에는 南麓으로  
부터 밋밋이 뻗어 산위에서 S字로 꾸부러진 더 넓은 길이 있다. 이 길  
은 急峻하며 아래로부터 꼭대기에 이르기 까지 드문드문 층대가 마련  
되어 있다. 고개 밑 길 왼편으로는 네개의 기둥을 가진 큼직한 帳幕이  
假設되어 있고 饑饉을 위하여 城밖으로 나온 官吏들이 正座하고 있다.

이 왼편에는 더 작은 장막이 하나 있고 그 왼편으로 뻗은 넓은 通路가  
끝나는 데에 慕華館으로 짐작되는 一群의 建物들이 담으로 둘러싸여 있  
다. 바로 앞에는 蓮葉이 그려진 넓은 蓮池가 있으며 人馬의 行列은 이  
慕華館과 中央下部에 그려진 雙柱의 迎恩門 사이에 있다. 다섯마리의 馬  
上人物은 넓은 곳을 쓰고 있으며 後尾右便의 人物은 남바위를 쓴 듯하다.

騎馬사이에에는 마중나온 人物들이 섞여 있고 馬夫들이 앞장 서 있다. 迎  
恩門 오른편에는 제각을 실은 한마리의 소와 人物이 마지막으로 一行의  
後尾를 向하고 있다. 畫面의 右上部에는 「西郊餞饗」 「辛亥季冬心」이라  
墨書하고 「謙齋」陰文方印一顆를 찍었다.

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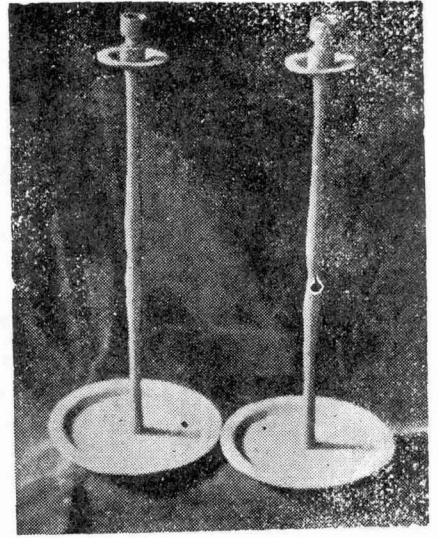
慕華館 東쪽의 帳幕은 漢京識略 宮室條에 보이는 「慕華樓對岸莎場淨  
澗 名宴享臺 迎送勅使時 設御幕於此也」의 宴享臺, 御幕인 것 같은데 御  
幕의 假設이 勅使의 來往時로만 局限되어 있었다면 이 그림은 燕京으로  
돌아가는 清나라 勅使의 歡送圖가 되겠다.

辛亥는 謙齋(一六七六—一七五九)가 五十六歲된 해이며 英祖七年(서  
기 一七三一)인데 이 해 十一月에는 大司憲 李夏源, 持平金若魯等 陳  
慰使節과 正使 洛昌君權, 副使趙尙綱 書狀官 李日躋 等의 謝恩冬至使節  
을 差出한 일밖에 없으니 帳殿의 假設이 勅使를 對象으로만 했었다고 생  
각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. 그렇지 않으면 그림은 이 해 季冬의 事實을 主  
題로 한 것이 아닐 것이다. 自國의 使節을 어떻게 餞送했는가 밝혀진  
다면 이 그림의 主題는 뚜렷해지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馬上의 人物들  
은 넓은 곳을 쓰고 있으니 이들은 十一月三日과 七日에 各各 陳慰  
使아니던 謝恩使로 생각된다. 人馬의 極少가 壯大한 山과 함께 이루는  
對比는 「餞饗」라는 遠心的, 主題의 感懷를 더욱 깊게 하며 雙石柱의 迎  
恩門, 母岳, 仁王, 白衣等 謙齋의 畫技는 李朝의 리릭을 彈奏해주는 듯  
하다.

鐵製 銀象嵌 燭臺

申 榮 勳

韓電所藏 古燈器中 鐵製銀象嵌燭臺를 簡略히 紹介한다.  
(一) 鐵製銀象嵌花文盤付燭臺 一雙



꽃았다. 촛대 各面마다에 花形文을 銀象嵌하였는데 比較的 保存狀態는 良好하다.

下盤內底에는 三條線으로 連結된 三角의 區劃을 八區로 하고 그 안팎으로 米字形 花文을 놓았고 그 안쪽으로 三條線 內輪을 두르고 그 안에는 글귀를 楷書로 써넣고 또 三條線의 內輪을 두르고 안쪽으로 雷雲文을 새겼다. 同緣에도 亦是 雷雲文을 線條內區에 配置하였다.

竿柱에는 上下端과 갈쭉한 中間部의 上下에도 雷雲文을 놓고 그 間地에는 樹葉文과 唐草文(?) 등의 무늬를 빈틈 없이 새겼다. 上盤周緣에는 雷雲文을 놓았고 呂字形 덧초꽃이 上下에도 各各 四區된 線條內에 形 무늬를 새겼다.

(二) 鐵製銀象嵌花文盤燭臺 一雙

總高二〇cm 下盤徑一五・二cm 초꽃이高二四cm

(一)과 形態 文樣이 모두 같으나 크기만이 작은데 덧초꽃이 部分만은 그 무늬와 形態가 조금 다르다 (一)은 덧초꽃이 呂字形인데 이것은 팔각의 圓筒形으로 생겼고 표면에는 亦是 四區된 線條內에 米字形花文이 있다. 以外에 防風扇에 雷雲文外郭內에 囀字를 嵌入한 燭臺도 있었으나 여

기서는 略하기로 한다. 이들은 大略 家庭用이었던듯한데 十九世紀頃의 作品으로 推定된다. 嵌入된 銀의 두께(鐵을 판 깊이)는 約一mm 未滿程度이다.

靑陽 大坪里 出土 石器

李 殷 昌

遺跡地(第一圖)(忠南靑陽郡木面大坪里田三九四番地)

出土地는 現地를 踏査하지 못하여 仔細한 것은 알 수 없으나 傳聞한 바에 依하면 今 春 國土建設事業으로 河川沙防工事中에 發見된 것이라 한다. 大坪里 出土地는 傾斜진 곳에 南北으로 主軸을 둔 支石墓群인듯한데 十基의 箱式棺이 列을 지어 있었다 한다. 其中 一八〇cm × 九五cm × 五〇cm 程度되는 箱式棺內에서 下記 石器가 나왔다는데 其他的 石郭 箱式棺內에서는 副葬品을 發見치 못하였다 한다. 그리고 이들 石郭棺을 全部라 헤치고 石器가 나온 墳墓의 巨大한 蓋石(人力으로 움직일 수 없다함)만이 남아 있다 한다.

發掘者 木面 大坪

里 居住 李鳳順 事業

主 大田市 大興 洞東

一 公社 金東日

(1) 有柄式石劍(第二圖(1)) 一個

二圖(1) 一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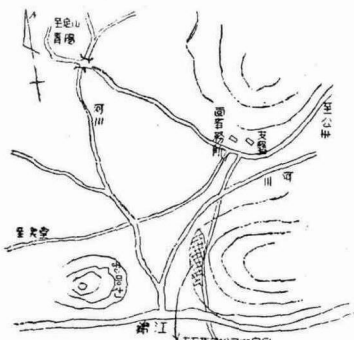
黑褐色 粘板岩(水

成岩)의 磨製石劍인

즉 劍身一九・五cm

柄部九cm 柄底五・

四cm의 數値를 보이



靑陽郡木面大坪里 石劍出土地圖 (在靑陽郡木面大坪里)